

보도자료

이 자료는 9월 30일 14:00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제 목 : 한국은행, 「신용정책 국제 심포지엄」 개최

-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의 신용정책 수행경험 및 향후 과제 (Credit Policy : Experiences and Challenges)”를 주제로 하여 9.30일(월) 한국은행 본관 15층 대회의실에서 신용정책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
 - 금번 심포지엄에서는 일본은행, ECB, FRB 등 주요국 중앙은행, IMF-STI, OECD, BIS 등 국제기구, 우리나라 정부, 학계 및 연구기관 인사들이 모여 신용정책 수행경험을 공유하고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 등 관련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기회를 가졌음
- 총재 개회사, 주요 발표 내용, 프로그램, 주요 참석자 이력사항 등은 '붙임' 참조

문의처 : 통화정책국 금융기획팀 과장 박준홍, 통화연구팀 최문성 과장

Tel : 759-4556, 4996 Fax : 759-4490 E-mail : symposium2013@bok.or.kr

공보실 : Tel (02) 759-4015, 4016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http://www.bok.or.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THE BANK OF KOREA

붙임

< 차례 >

1. 개회사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1
가. 국문	
나. 영문	
2. 주요 발표 내용	12
3. 프로그램	15
4. 주요 참석자 이력사항	16

1. 개회사

가. 국문

「중앙은행의 신용정책 수행경험 및 향후 과제」
국제 심포지엄 개회사

2013. 9.

한 국 은 행
총 재 김 중 수

(환영인사)

- 한국은행의 **신용정책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함
 - 오늘 이 자리에는 학계, 주요국 중앙은행, 국제기구, 그리고 한국 정부 및 연구기관 등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음
 -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keynote speech)을 해 주실 Christian de Boissieu 교수와 제2세션을 이끌어 주실 조운제 교수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그리고 각국의 사례를 발표해 주실 BOJ의 Dr. Kobayakawa, ECB의 Dr. Stubbe, FRB의 Dr. Kim과 토론해 주실 IMF-STI의 Director, Dr. Sharma, OECD의 Dr. Schneider, BIS의 Dr. Yetman에게도 감사드립니다
- 중앙은행의 신용정책은 높은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수요는 많지만 금융시장의 발전이 미흡한 **신흥국에서 주로 활용**되었음
 -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금융중개기능 저하와 경기부진 심화에 직면하여 이례적으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실행함과 동시에 **신용정책을 유용하게 활용하거나 그 활용을 고려**하기 시작하였음
- 금년 9월이 Lehman Brothers 파산 후 만 5년이 되는 데다 주요국에서 신용정책이 새롭게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용정책의 역할과 유효성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며, 금번 심포지엄이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함
 - 현재 한국은행은 주요국 중앙은행과 마찬가지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가운데 **시장마찰**(market friction), **신용흐름의 왜곡** 등으로부터 초래되는 문제를 완화해야 하는 정책과제에 직면하고 있음
 - 한국은행은 신용정책의 체계를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국은행의 신용정책 경험**을 간략히 소개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논의에 유용할 것으로 생각함

(신용정책의 의의)

- 신용정책은 일반적으로 ‘중앙은행 대차대조표의 자산구성 변화를 통해 **민간부문의 자금흐름이나 신용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정의* 할 수 있으며, 통화정책 및 거시건전성정책과 함께 중앙은행이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행하는 정책**의 일환임

* “Credit policy involves changing the composition of a central bank’s assets, holding high-powered money fixed.”(Goodfriend 2010)

“In the case of credit policy, central bank operations targeting specific segments of the private debt and securities market alter the composition of private sector balance sheets by changing the central bank’s exposure profile to private sector claims.”(Borio and Disyatat 2009)

- 이론적으로 중앙은행은 금융시장에서 **시장실패** 또는 **시장마찰**이 자금 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신용정책을 활용하게 됨
- 시장마찰과 관련하여서는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제약, 정보의 비대칭성, 군집행동** 등을 포함하여 많은 사례들이 있음
- 과거에는 신용정책이 경제성장과 발전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특정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데 주로 활용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지난 몇 년간 보아온 바와 같이 주로 **경제회복을 뒷받침하고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보완하는 보다 넓은 관점**에서 활용되었음
 - 이러한 신용정책 활용의 구체적인 사례들로는 신용경색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대출 자금지원, 국제무역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금융, 경제인프라에 대한 장기투자자금 지원, 금융포용의 관점에서 영세민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 등임
- 신용정책은 시장마찰로 인한 왜곡과 금융포용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유효한 것으로 인식되지만, 동 정책으로 인해 **왜곡과 비효율**이 초래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특히 신용정책으로 야기될 수 있는 **도덕적 해이, 금융시장의 가격결정 과정에서의 왜곡, 정책 불확실성**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한국은행의 신용정책 수행경험)

-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한국은행의 **신용정책 수행경험**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유용할 것임
- 한국은행의 신용정책 경험은 다양하며, 한국은행은 부여된 **책무와 경제여건의 변화**에 맞추어 신용정책을 적절히 수행하여 왔음
 - 1990년대 중반까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부문**에 신용이 배분될 수 있도록 신용정책을 운영하였음
 - 이후 한국은행은 **시장의 금융자금 배분 메커니즘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왔으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신용정책을 유지**해 왔음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용정책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었으나 그 배경은 과거와 다르다고 하겠음
 - 금융시장에서 상존하고 있는 높은 불확실성과 위험회피는 금융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통화정책 파급경로**를 훼손하였음
 - 특히 많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이 감내가능한 금리수준으로는 신용을 공급받지 못하였음
- 이에 대한 정책대응의 일환으로 한국은행은 **기존 대출제도의 범위를 확대**하였음
 - 구체적으로 작년에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전환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며, 올해는 **기술형 창업기업에 대한 은행대출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음
- 앞으로 한국은행은 여러 **자금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와 부작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임
 -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신용정책이 초래할 수 있는 시장의 비효율성을 줄이면서도 신용이 가장 필요한 부문으로 공급되도록 **신용정책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임

(맺음말)

- 글로벌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경기침체는 세계경제뿐만 아니라 **중앙은행에 있어서도 전환점**이 되었음
 - 거시경제 및 금융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중앙은행의 역할과 정책수행의 범위가 확대**되었음
 - 최근 중앙은행의 역할이 지난 수십년 동안 유지되어 온 정통적인 견해로부터 크게 벗어나 있는 가운데 **미래의 금융·경제환경**도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를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임
 - 우리가 비전통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조만간 **전통적**인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음
- 이러한 배경과 중앙은행의 책무가 확대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신용정책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유지함에 있어 **통화정책을 보완**하는 유용한 정책수단으로서 과거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확신함
- 아무쪼록 금번 심포지엄이 **중앙은행의 신용정책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 국가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하며, 심포지엄 참석자들간의 **생산적인 토론과 새로운 아이디어의 교환**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함

참 고 문 헌

김중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통화정책”, 2013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 2013. 2

Borio, C. and P. Disyatat,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ies: An Apraisal,” BIS Working Paper No. 292, 2009.

Goodfriend, M., “Monetary Policy after the Crisis,” commentary delivered at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Asia Economic Policy Conference, 2011.

IMF,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ies: Recent Experience and Prospects,” April 18, 2013.

Stiglitz, J., “The Lessons of the North Atlantic crisis for Economic Theory and Policy,” column sharing reflections on the recent IMF conference “Rethinking Macro Policy II: First Steps and Early Lessons,” May 3, 2013, available at <http://blog-imfdirect.imf.org/2013/05/03/the-lessons-of-the-north-atlantic-crisis-for-economic-theory-and-policy/>.

나. 영문

Credit Policy : Experiences and Challenges
The Bank of Korea International Symposium
Seoul, Korea
September 30, 2013

Opening Speech

Choongsoo Kim
Governor of the Bank of Korea

Distinguished speakers and participants,

I would like to extend my sincere welcome to all those attending the Bank of Korea's International Symposium on Credit Policy.

We are joined at today's symposium by many distinguished guests from the academic community, major central bank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well as from the Korean government and research institutes.

In particular, let me express my deep appreciation to Professor Christian de Boissieu who will be giving the keynote speech and Professor Yoon-Je Cho for moderating the second session. And my thanks also go to Dr. Kobayakawa from the BOJ, Dr. Stubbe from the ECB, Dr. Kim from the Federal Reserve Board, for presenting their respective experiences on credit policy, and to Dr. Sunil Sharma, Director of the IMF-STI, Dr. Schneider from the OECD, and Dr. Yetman from the BIS for acting as discussants.

Central bank credit policy had typically been used in emerging market economies where the demand for credit is high to support high growth but financial markets remain underdeveloped with significant market frictions. This appears to be no longer a case follow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owever. In the face of impaired financial intermediation and a severe recession, major central banks began to make or consider good use of credit policy while at the same time undertaking extraordinary monetary easing.

As this September marked the end of 5th year from the collapse of Lehman Brothers and in view of the new experiments with credit policy in major economies, I believe that time is ripe to revisit the role and effectiveness of credit policy. I hope this symposium will offer a good opportunity for us to share our experiences and learn from each other so we can move forward.

At present, the Bank of Korea, similarly to major central banks, is facing policy challenges arising from market frictions and distorted credit flows in the midst of monetary easing. As we are currently working to revamp our credit policy framework, it would be useful for your discussion to briefly update you on our experiences with credit policy.

Credit policy

One may define credit policy as a policy which affects the private sector's flow of funds or credit allocation by changing the asset composition on central bank's balance sheet. It is therefore a leg of central bank policies to achieve its ultimate objectives, along with monetary and macro-prudential policies.

In theory, central banks may turn to credit policy when market failures or frictions are considered to create distortion in funds allocation. Examples of market frictions are many including impaired transmission channels of monetary policy, information asymmetry, herd behavior, and so on.

In the past, credit policy was often used to direct credit to specific sectors of strategic importance to economic growth and development. Since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s we have seen over the past several years, credit policy has been motivated from a broader perspective to support economic recovery at large and to complement monetary easing. Specific examples would include, among others, central bank funding for bank lending to SMEs in credit crunches, trade financing to support international trade, financial support for long-term financing for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support for enhanced financial access by the poor in the context of financial inclusion.

While considered useful to address distortions from market frictions and social concerns related to financial inclusion, credit policy may not be free of its own distortions and inefficiencies. In particular, central banks

should be mindful of moral hazard, possible distortions in the price discovery process of financial markets, and policy uncertainty that credit policy could create.

BOK's experiences with credit policy

Having said that, it would be useful to review very briefly the history of credit policy in Korea. Our experiences at the Bank of Korea with credit policy are diverse, and have evolved with our mandates and changes in economic circumstances. Up until the mid-1990s, credit policy had been geared toward credit allocation to sectors with a limited track record of growth but good prospects for it. After that, the Bank of Korea gradually retreated from credit policy with a view to promoting the market mechanism in financial resource allocation. Nevertheless, it has kept credit policy targeted for SMEs although at a smaller scale than before.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e need for credit policy reemerged but for different reasons from the past. Severe and great uncertainty in financial markets and risk aversion have broken the last segment in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channels that links financial conditions and the real economy. In particular, many SMEs and small-scale sole traders were denied access to credit at any affordable interest rates.

As part of its policy responses, the Bank has broadened the scope of the existing lending facility. To be specific, a funding program for bank lending to small-scale sole traders was introduced last year. In this year, the funding program was further expanded in scope to support bank lending to start-up SMEs with a promising technology base.

Going forward, we plan to monitor and critically review the performance of the funding program and any associated side effects if any. Such efforts will guide us to a better design of credit policy that can strike the right balance between improved credit flows to where most needed and possible market inefficiencies that credit policy itself can create.

Closing remarks

Ladies and gentleme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and the subsequent Great Recession were a turning point not only for the global economy but also central banking. It has broadened the role of central banks and the scope of their policies in managing macroeconomic and financial stability. While a significant departure from the orthodox view on central banking that had prevailed over the past several decades, it should be kept in mind that the macroeconomic and financial landscape of the future would likely be quite different from what we see now. What we have thought as unconventional may soon be considered conventional.

In this context and also in light of increasing mandates of central banks, I firmly believe that credit policy should receive far more attention than in the past as a useful complement to monetary policy in addressing price and financial stability.

I sincerely hope that this symposium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rethink central bank credit policy and learn from diverse country experiences.

I look forward to productive discussions and the exchange of new ideas among symposium participants.

Thank you.

2. 주요 발표 내용

일본은행 : 일본의 신용정책 운용경험 및 향후 과제

(발표 : Shuji Kobayakawa, BOJ 통화정책국 부국장)

- 일본은행의 신용정책 프로그램의 도입 배경,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동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제시
 - 일본은행은 '성장기반 강화지원을 위한 자금공급제도'*와 '대출증가 지원을 위한 자금공급제도'**로 구분되는 대출지원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음(2013.8월말 현재 이용잔액은 7조엔을 상회)
 - * R&D 등 18개 잠재적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2010.6월에 도입(micro approach)
 - ** 기업 및 가계의 자금수요를 촉진하고 민간 부문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규자금 공급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2012.10월에 도입(macro approach)
 - 동 제도를 통하여 금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대출행태를 유도하고, 투자 활성화 및 기업과 가계의 지출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향후 신용정책 수행과 관련된 과제로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간의 영역문제, 여타 정책자금과의 보완성 등을 제시

ECB : ECB의 신용정책

(발표 : Michel M. Stubbe, ECB 시장운영지원부장)

- 금융위기에 대응한 ECB의 전반적인 신용공급 확대 조치를 설명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 및 향후 과제를 제시
 - ECB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책금리 인하 뿐만 아니라 은행을 통한 신용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실시하였으나, 그 효과가 기업들에게 차별적으로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는 지속되어 왔음
 - * 적격담보의 범위 확대, 담보의 신용등급 요건 완화 등

- 이에 대응하여 각국 정부, 유럽투자은행 등 국제기구, EU 등은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중소기업의 자금부족 완화 및 신용리스크 축소 등의 효과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됨

* 각국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보증 확대,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및 유럽투자펀드(European Investment Fund) 등 국제기구를 통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일정금액 이하 소규모 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및 익스포져 산출치 축소 적용 등

- 향후 정부, 금융당국, 국제기구 등과의 협조를 통해 중소기업 자금조달애로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FRB : 미 연준의 자산매입 프로그램

(발표 : Don H. Kim, FRB 통화금융분석부장)

- 미 연준의 자산매입프로그램 및 오퍼레이션 트위스트의 주요 내용, 자산매입프로그램의 작동경로 등에 설명하고 동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소개

- 자산매입프로그램의 대표적 작동 경로에는 Portfolio balance channel*과 Signaling channel**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준의 자산(장기국채, MBS) 매입 → 일반투자자의 매입가능 자산 감소 → 해당 자산 매입자산 가격 상승(금리 하락)

** 중앙은행의 완화기조 강화 의지 → 미래의 예상단기금리 하락 → 장기금리 하락

- 자산매입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장기국채금리와 MBS 수익률을 상당 폭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 장기국채 1,000억달러 매입 → 장기국채 및 MBS 수익률이 각각 5bp하락
MBS 1,000억달러 매입 → 장기국채 및 MBS 수익률이 각각 3.5bp 및 8.5bp 하락

한국은행 : 총액한도대출 및 개편 방향

(발표 : 김민호,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개요 및 연혁, 최근 제도개편, 운용성과 등을 소개하고 향후 개선방향을 제시
 - 한국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 유도를 위해 은행이 취급한 중소기업대출 재원의 일부를 낮은 금리로 공급해 주는 총액한도대출을 운영해왔으며, 2013.4월 동 제도를 대폭 개편하면서 신용정책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음
 - 총액한도대출은 중소기업 대출 확대 및 금리 경감, 부문별·지역별·계층별 신용공급 불균형 해소 등 신용정책 측면에서의 성과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신용위험 축소, 금융의 경기순응성 일부 완화 등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효과와 금리정책의 효과를 보강하는 성과도 있었음
 - 향후 한국은행은 총액한도대출의 명칭 및 체계변경, 규모 및 개별 프로그램의 탄력적 조정, 은행 간 경쟁 유도 등을 추진할 방침임


3.


신용정책 국제 심포지엄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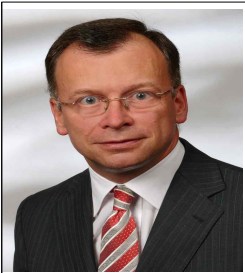
13:30~14:00	등록(Registration)
14:00~14:10	개회사(Opening Address) - 김종수 한국은행 총재
14:10~14:30	기조연설(Keynote Speech) - Christian de Boissieu (University of Sorbonne 교수)
14:30~16:30	(제1세션) 중앙은행의 신용정책 수행 경험 - 사 회: 김준일 한국은행 부총재보 (14:30~15:30) <input type="checkbox"/> 사례발표 - Shuji Kobayakawa (Associate Director General, Monetary Affairs Dept. BOJ) - Michel Stubbe (Head of Financial Operations Service Division, Directorate General Market Operations, ECB) - Don H. Kim (Section Chief, Monetary and Financial Market Analysis Section, Monetary Affairs Division, FRB) - 김민호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 (15:30~16:10) <input type="checkbox"/> 토론 - Sunil Sharma (Director, Singapore Training Institute, IMF) - 장 민 금융연구원 특임연구실장 -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 - 노영진 KIET 산업경제연구실 연구위원 (16:10~16:30) <input type="checkbox"/> Q&A
16:30~16:45	Coffee Break
16:45~18:45	(제2세션) 중앙은행의 역할 변화와 신용정책의 활용 - 사 회: 조윤제 서강대 교수 <input type="checkbox"/> 패널토론 - Lead-off Speech: 조윤제 서강대 교수 - Jean-Luc Schneider (Director, Economics Dept. OECD) - James Yetman (Senior Economist, Monetary and Economics Department, Economics for Asia and the Pacific, BIS) -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Shuji Kobayakawa (Associate Director General, Monetary Affairs Dept. BOJ) - Michel Stubbe (Head of Financial Operations Service Division, Directorate General Market Operations, ECB) - Don H. Kim (Section Chief, Monetary and Financial Market Analysis Section, Monetary Affairs Division, FRB) - 최운규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장
폐 회	


4. 주요 참석자 이력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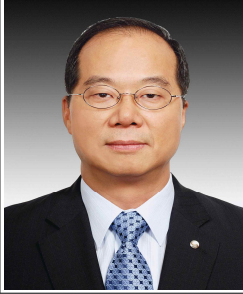
	성명	Christian de Boissieu (1947년생, Keynote Speaker)
	현직	University of Sorbonne 교수 프랑스 국무총리 산하 '경제분석 위원회' 회장
	학위	Ph.D. University of Sorbonne, Economics (1973)
	주요경력	파리상공회의소 경제자문위원, Worldbank consultant
	주요논문	Les Entreprises Françaises 2004, Economica, Paris 2004


	성명	김준일 (1957년생, 제1세션 사회자)
	현직	한국은행 부총재보
	학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위	Ph.D. Brown University (1988)
	주요경력	Deputy Division Chief, Research Department, IMF
주요논문	"Are All Emerging Market Crises Alike?" (with Atish Ghosh and Marcos Chamon) IMF Working Paper, forthcoming.	


	성명	Shuji Kobayakawa (제1세션 발표)
	현직	Associate Director General Monetary Affairs Department, Bank of Japan
	학부	Hitotsubashi University, Economics
	학위	Ph.D. University of Oxford, Economics
	주요경력	Senior Economist in OECD
주요논문	A Theoretical Analysis of Narrow banking Proposals(2000)	

	성명	Michel Stubbe (제1세션 발표)
	현직	Head of Financial Operations Services Division, Directorate General Market Operations, ECB
	학위	Ph.D. Pierre Mendès France University, Economics
	주요경력	Head of the Market Operations Analysis Division, Directorate General Market Operations


	성명	Don H. Kim (제1세션 발표)
	현직	Section Chief, Monetary and Financial Market Analysis Section, Monetary Affairs Division, FRB
	학부	Harvard University, Physics (1994)
	학위	Ph.D. MIT, Physics (1998), Ph.D. Stanford University, Finance (2005)
	주요경력	BIS 이코노미스트, 연세대학교 교수
주요논문	Challenges in Macro-Finance Modeling(2009)	


	성명	김민호 (1959년생, 제1세션 발표)
	현직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국장
	학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위	M.A. University of Michigan, Economics (1997)
	주요경력	프랑크푸르트 사무소, 금융시장국, 정책기획국 근무


	성명	Sunil Sharma(제1세션 토론패널)
	현직	Director, Singapore Training Institute, IMF
	학위	Ph.D. Cornell University, Economics
	주요경력	Economics Faculty at UCLA, Chief in Asian Division, IMF


	성명	장민 (1965년생, 제1세션 토론패널)
	현직	금융연구원 특임연구실장
	학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위	Ph.D. Michigan State University, Economics (1997)
	주요경력	BIS 이코노미스트, 한국은행 조사국 및 정책기획국 차장
	주요논문	우리나라 외환시장 변동성 요인 분석(2011),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및 시사점(2009)


	성명	강동수 (1967년생, 제1세션 토론패널)
	현직	KDI 금융경제연구부장
	학부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학위	Ph.D. University of Chicago, Economics
	주요경력	OECD 이코노미스트, 금융감독원 책임감독 담당
	주요논문	Financing Innovation-oriented Business to Promote Entrepreneurship(2007), 국제자본이동 및 외환시장에 대한 금융 규제(2012)


	성명	노영진(1971년생, 제1세션 토론패널)
	현직	KIET 산업경제연구실 연구위원
	학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학위	Ph.D.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Binghamton, Economics (2007)
	주요경력	Seoul G20 Business Summit 조직위원회
	주요논문	"금융불안이 산업경제에 미치는 과급효과와 정책적 대응방향", (2009)

	성명	조윤제 (1952년생, 제2세션 사회 및 Lead-Off Speaker)
	현직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학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1976)
	학위	Ph.D. Stanford University, Economics (1984)
	주요경력	영국대사,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
	주요논문	Credit Policies: Lessons from East Asia(1995)

	성명	Jean-Luc Schneider (제2세션 토론패널)
	현직	Director, Economics Dept. OECD
	학위	Ph.D. London School of Economics, Economics
	주요경력	Analyst in Forecasting Directorate, French Statistical Institute Economics Faculty at UCLA, Chief in Asian Division, IMF

	성명	James Yetman (제2세션 토론패널)
	현직	Senior Economist, Monetary and Economics Department, Economics for Asia and the Pacific, BIS
	학위	Ph. D. Queen's University in Canada, Economics
	주요경력	Research Department, Bank of Canada
	주요논문	Estimating Dynamic Euler Equations with Multivariate Professional Forecasts, Economic Inquiry, Jan 2013

	성명	김용범 (1962년생, 제2세션 토론패널)
	현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행시 30회)
	학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위	Ph.D.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Economics
	주요경력	G20 서울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국제금융시스템개혁국장, 대통령 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실

	성명	최윤규 (1960년생, 제2세션 토론패널)
	현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원장
	학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위	Ph.D. UCLA, Economics (1995)
	주요경력	Senior Economist, Asian Division, IMF,
	주요논문	Fire Sales and the Financial Accelerator,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012